

	<h1>보 도 자 료</h1> <h2>배포시부터 보도 가능</h2>	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  금융제도팀·보험과·자본시장과·중소금융과·신용정보팀 / 금융감독원  감독총괄국				
책  임  자	김연준  금융제도팀장  (2156-9680)	담  당  자	류성재  사무관  (2156-9683)		
	이동훈  보험과장      (2156-9830)		박경덕  사무관  (2156-9842)		
	이형주  자본시장과장  (2156-9870)		김동현  사무관  (2156-9874)		
	윤영은  중소금융과장  (2156-9850)		박진애  사무관  (2156-9853)		
			민인영  사무관  (2156-9856)		
	남동우  신용정보팀장  (2156-9604)		진형구  사무관  (2156-9670)		
	최성일  감독총괄국장  (3145-8300)		이진석  부국장   (3145-8001)		
배  포  일	'15.6.25(목)	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	총 4매

## 제 목 : 금융회사의 신규사업 진출 제한 관련 문제점 개선

기관경고를 받으면 3년간 신규사업 진출이 제한되는 문제 개선  
인수·합병으로 인해 제재가 누적되어 가중되는 문제 개선

### I. 추진 배경

- ☐ 금융산업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유롭게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고 기존 금융회사간 인수·합병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
- ☐ 그러나, 현행 제도는 ① 기관 경고 이상 제재를 받으면 통상 3년간 대주주 적격이 제한되어 신규사업에 진출할 수 없고,  
② 인수·합병시 기존 회사들의 제재기록이 누적가중되어 금융회사가 인수·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

⇒ 기존 제재사실로 인해 신규사업 진출과 인수·합병이 과도하게 제약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 추진

※ 관련된 6개 감독규정을 일괄 개정 (변경예고기간: 6.25~8.4, 40일간)

-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, 금융투자업규정, 보험업감독규정,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,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, 신용정보업감독규정

## II. 주요 개선내용

### 1 기관경고를 받으면 3년간 신규사업 진출이 제한되는 문제 개선

#### 가. 현황 및 문제점

##### < 현장의 문제 사항 >

# A 은행은 보험업 진출을 위해 B 보험사 인수를 검토하였으나, 최근 받은 기관경고로 인해 3년간 인수가 불가능한 문제에 직면

- ☐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신규 인·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 상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일정기간 신규업무에 진출할 수 없음
- 특히, 금융지주·보험·저축은행·신용카드·신용정보업의 경우 대주주가 되는 것을 3년간 제한하여 과도한 제약이라는 비판 제기

##### < 기관경고 이상 제재시 효과 >

업 권	주 요 내 용
지 주	○ 3년간 지주 설립인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제한
보 험	○ 3년간 보험업 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제한
저축은행	○ 3년간 상호저축은행업 인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제한
신용카드	○ 3년간 신용카드업 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제한
신용정보	○ 3년간 신용정보업 주요출자자 요건 제한

※ 금융투자업의 경우, 최근 제도를 개선('14.11월)하여 제한대상과 기간을 합리적으로 축소

기 존	개 선
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, 3년간 제한	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, 기관경고: 1년간 제한 시정명령·업무정지 이상: 3년간 제한

## 나. 개선방안

□ 금융지주·보험·저축은행·신용카드·신용정보업의 경우에도 금융투자업과 동일하게 제한대상과 기간을 축소

○ 제재받은 금융회사가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,

- 기관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1년간,

- 시정명령·영업정지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3년간 제한

※ 다만, 기관경고의 제재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규업무 제한기간만 축소하고 누적시 영업정지로 가중되는 효과는 그대로 유지

○ 제도개선 효과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, 지난 3년간 기관경고를 받은 회사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

\* 최근 3년간('12년~'14년) 1회 이상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회사 : 68개

○ 또한, '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 지원'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신규 인허가, 대주주 변경승인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마련

## 2

### 인수·합병으로 인해 제재가 누적가중되는 문제 개선

#### 가. 현황 및 문제점

##### < 현장의 문제 사항 >

# 2년전 1차례 기관경고를 받은 C 증권사는 D 증권사 인수를 추진중이나, D 증권사를 인수할 경우 D 증권사가 받은 기관경고(2회)까지 누적합산되어 추후 영업정지로 가중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인수를 망설이게 되었음

- ☐ 기관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최근 3년내 3회이상 제재가 누적될 경우 제재를 한단계 가중\*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(검사·제재규정)

\* 기관주의→기관경고, 기관경고→영업정지

- 금융회사가 타 회사와 인수·합병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들이 받았던 제재를 모두 합산하여 제재를 누적가중함에 따라 인수·합병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

## 나. 개선방안

- ☐ 금융회사가 인수·합병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별도 기준에 따라 누적가중제도를 적용
- 인수·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제재기록을 기준으로 누적가중하고,
- 인수·합병을 통해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경우에는 최근 3년내 제재사실이 더 많았던 회사를 기준으로 누적가중하도록 함

## Ⅲ. 향후 추진계획

- ☐ 6.25 ~ 8.4일(40일), 관련 업권별 감독규정 일괄 변경예고 실시
- ☐ 8월중, 규정에 대한 금융위원회 심의·의결
- ☐ 9월~, 금융회사의 신규사업 진출 제한 관련 문제점 개선방안 시행

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c.go.kr>

